

#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김지현(金知賢)\*\*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성성역할과 관련하여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영하는 89개의 6점 Likert 척도 문항을 만들고, 이 중 여대생 집단의 평균 점수가 3.5 미만이며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은 반응을 하는 등의 문항을 제외한 22개의 문항을 얻었다. 여대생 210명이 이 22개의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다중 부하를 보이는 5개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에 대해 4개의 요인을 얻었다. 다시 349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 4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4요인 모형이 새로운 자료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척도의 변별타당도 및 준거타당도가 함께 검토되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주요어 : 여성성역할, 성역할갈등, 성역할괴리, 성역할역기능

## I. 서론

성역할의 내면화는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lgeson, 2002). 연구자들은 성역할의 이런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

\*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으며 다양한 교육적,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여왔다. 교육에서 성과 관련하여 일찍이 관심을 받은 분야는 여성이 경험하는 수학 혹은 과학 교육에서의 장벽이었다(i.e., 민무숙, 이정희, 2005; Brownlow, Jacobi, & Rogers, 2000; Murphy & Whitelegg, 2007). 이외에도 체육 등 여타 특정 과목의 학습과 성역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왔으며(i.e., 조한범, 김미향, 김인제, 2000), 성역할과 일반적인 학업성취간의 관계(i.e., 오운자, 2003)도 탐색되어왔다.

Whitley(1984)는 남성성, 여성성과 심리적 건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다수의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성역할이 긍정적 심리 변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성역할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탐색되었다. 예를 들어 Gottfredson(1981)은 성역할의 내면화에 따라 생의 초기부터 남성은 남성적 직업을, 여성은 여성적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고 Cook과 Symbayi(1998)는 내면화된 성역할에 따라 직업의 성 정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름을 보였다. Lindley(2005)는 진로장벽의 인식과 관련하여 남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성역할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을 측정하는 경우 이를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은 주로 Bem(1974), 혹은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등이 제안한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성역할 척도들이었다. 이 척도들을 사용한 연구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심리적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우울 등 부정적 변인을 설명할 때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Whitley, 1984). 그 이유는 Bem 등의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역할 척도들이 성역할의 긍정성만을 측정할 뿐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에는 소홀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졌다. 따라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려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 도구들은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구들과는 다른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였다(i.e., ;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처럼 다양한 성역할 측정 도구들을 통해 성역할과 그 영향을 보다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탐색하려는 시도들은 주로 남성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i.e., Gillespie & Eisler, 1992). 한국에서도 역시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성역할의 내면화 정도를 한국 문화에 적합하게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어왔고(i.e., 김영희, 1989; 정진경, 1990)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주로 남성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i.e.,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지금까지 성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이 밝혀왔듯이 성역할이 다차원적이며 이를 총체적으로 탐색할 때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과 그 영향을 보다 잘 알 수 있다면, 남성성뿐 아니라 여성성의 긍정적 부정적 차원에 대한 이해와 측정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성의 다차원

성과 함께 여성의 진로장벽, 특정 학과목에 대한 심리적 장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역할의 내면화와 표현이 문화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Kiselica & Englar-Carlson, 2008)과 생애 발달의 영향에 민감함(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을 고려할 때 여성성의 한 측면을 탐색하는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특정 문화 내의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 즉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그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가 긍정적 측면의 여성성 척도와는 다른 영역을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진경(1990)이 BSRI(Bem, 1974)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성역할검사의 여성성 척도와 개발된 척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여성의 부적응적 행동과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 의사결정의존성과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섭식장애(안명희, 2004)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성역할이란 생물학적 성에 기초하여 한 개인의 행동, 사고, 정서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Kilmartin, 2007). 이 정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행동, 사고,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된다는 생각을 포함한다. 초기 성역할 연구자들은 이 같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적응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남성은 남성다운 성격특성과 역할(남성성)을, 그리고 여성은 여성다운 성격특성과 역할(여성성)을 내면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 차원상의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남성이 높은 여성성을 나타내거나 여성이 높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것은 병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Helgeson, 2002). 이 관점에는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편견이 잠재해 있었다(Tang & Lau, 1996).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대되며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믿음은 1970년대에 들어 Bem(1974),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등에 의해 경험적으로 논박된다. 이들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별개의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며 높은 수준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보이는 경우는 양성성이라 불리었다.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격특성과 관련시켰으며 높은 수준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 모

두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도울 것으로 믿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Bem과 Spence 등의 모형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두 측면에서 중요한 비판에 직면한다. 먼저 제기된 비판은 이들이 개념화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성격특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Spence(1984)는 스스로 자신이 제안한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격특성만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행동, 태도 등 다양한 차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하나의 비판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면화가 과연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응적이기만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있다. O'Neil(1982)과 Pleck(1981) 등은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가 한 개인 혹은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과도한 남성성의 내면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경쟁적, 공격적, 성취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한편 높은 수준의 양성성은 여성들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과 과업에서의 성취를 위한 시간 모두를 확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정된 시간 자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은 성에 따른 성격특성이나 성역할을 설명하는 이론 모형들을 반영하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단일 차원이라는 이론 모형 즉 성정체성 모형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Hathaway & McKinley, 1951)의 M/F 척도에 잘 나타나 있다. MMPI의 M/F 척도는 본래 이성애 남성과 동성애 남성을 분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양극성의 단일차원이란 것 뿐 아니라 남성이 동성애적 경향성을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높은 여성성 때문이며 남성이 높은 남성성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는 가정이 담겨있다. 그러나 MMPI의 M/F 척도에 담긴 이런 가정들은 모두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척도는 더 이상 본래의 개발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로 상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rong 직업 흥미 검사(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4)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단일 차원이란 생각을 반영한 M/F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Strong 직업 흥미 검사의 M/F척도는 현재 회귀응답지수로서 해석되며 여전히 본래의 개발 의도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통해 어떤 남성이 Strong 직업 흥미 검사의 M/F 척도에서 높은 F 점수를 얻는다면 이 남성은 '특이한 응답자로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며 남성은 남성성이 높은 것이, 그리고 여성은 여성성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독립된 차원으로 개념화한 이론, 즉 양성성 모형을 반영한 척도는 Bem Sex Role Inventory(BSRI; Bem, 1974)와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PAQ; Spence,

Helmreich, & Stapp, 1974)가 대표적이다. BSRI의 남성성, 여성성 문항들은 각각 그것이 남성 혹은 여성 중 어느 한 성에게 얼마나 더 바람직한 성격 특성인가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에 비해 PAQ의 문항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함께 바람직스러우나 특히 어느 한 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 남성성 척도에 속할 것인지 여성성 척도에 속할 것인지 결정되었다. 이처럼 BSRI와 PAQ의 남성성, 여성성 문항의 선정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모두 바람직한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척도에서 높은 수준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보인다는 것은 각각 특정 사회적 장면에서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것이며 특히 높은 수준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소유한 양성성은 이런 자원을 모두 가진 것으로서 보다 많은 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척도들은 기대대로 자존감 등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우울 등 부정적 측면의 심리적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다(Whitley, 1984).

높은 수준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획득이 반드시 적응적이지 않으며 순화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개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성역할갈등 이론은, 남성성에 대해서는 성역할갈등척도(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남성성역할스트레스척도(the 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Eisler, Skidmore, & Ward, 1988), 그리고 남성성역할이념척도(the Masculine Gender-Role Ideology: MGRI, Pleck, Sonenstein, & Ku, 1993)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처럼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있으며 이들 척도를 이용하여 순화되지 않은 남성성의 내면화가 남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 또한 적지 않다(i.e., O'Neil, Good, & Holmes, 1995). 이에 비해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는 흔치 않으며 관련 연구도 제한되어있다(i.e., Gillespie & Eisler, 1992).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찾아 볼 수 있으나(i.e.,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여성성역할스트레스척도(the Fe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FGRS, Gillespie & Eisler, 1992)는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흔치 않은 척도들 중 하나이다. 이 척도의 개발자들은 여성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한 다수의 예비문항들을 개발하고, 43명의 남녀 응답자들에게 각 예비문항이 보통의 여성과 보통의 남성에게 각각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지를 6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보통의 여성이 보통의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평정된 65개의 문항들을 요인분석 한 결과 39개의 문항이 해석 가능한 5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5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감정 없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장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움, 양육적이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FGRS는 우울, 섭식 장애 등과의 의미 있는 상관을 통해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Martz, Handley, & Eisler, 1995).

구체적 성역할은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Helgeson, 2002), 미국에서 개발된 FGRS를 다른 사회 문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 간 척도 타당화가 시도되었다. Well, Kolk, 와 Arrindell(2005)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FGRS의 5요인 구조가 네덜란드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Tang과 Lau(1996)의 연구에서는 5요인 구조보다는 3요인 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래 39개의 문항 중 18개 문항만이 의미 있는 문항으로 남았다. Tang과 Lau가 제안한 3요인은 주장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적절함이다. 그런데 부적절함 요인의 경우 주로 감정 없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역할이 삶의 다양한 장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인이며(Kilmartin, 2007),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의 내면화가 한 개인 혹은 그 개인을 둘러싼 타인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O'Neil, 1982; Pleck, 1981),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탐색은 개인의 건강한 적응과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Gillespie와 Eisler가 개발한 FGRS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Tang과 Lau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서구 사회에서 개발된 성역할 척도와 문항들을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조공호와 이재영(2007)은 서구문화권이 개인주의 사회의 성격을, 동아시아 문화권이 집단주의 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의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개인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역할 내면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 광고에서 나타나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그 내용면에서 서구의 그것과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보이고 있다(김상훈, 안대천, 2006). 따라서 한국 사회의 개인의 사회화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는 척도 혹은 문항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의 차이는 사회문화 간 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이 전생애적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 변화, 사회적 변화에 의한 역할의 변화와 관련 있다(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특히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서 오는 경험의 차이는 청년기 여성과 다른 발달 단계 상의 여성이 내면화하는 역할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발달 단계 상의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역할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 1. 문항개발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성역할이 부정적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개인이 성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경험하는 갈등이며 이를 성역할괴리이론(gender-role discrepancy theory)이라 부른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이 그 자체로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며 이를 성역할역기능이론(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 theory)이라 할 수 있다(Pleck, 1995). 예를 들어 남자는 과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기대와 달리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남자에게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과묵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FGRS는 이 중 성역할괴리이론을 반영한 문항만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영한 문항들을 모두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Pleck(1995)은 이 밖에도 성역할이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성역할 외상(male gender role trauma)이란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여성의 남성적 행동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남성의 경우 생의 초기에 모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더 엄격하다. 성역할 외상 이론은 이런 과정들이 그 자체로서 남성에게 심리적 외상을 안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독립성 등 남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엄격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Basow, 1992)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연성이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성역할 외상이라는 개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 개발에서 성역할 외상 개념의 적용을 유예하였다.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44명의 여자 대학생과 5명이 석사과정 여학생이 여성으로서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황과 여성으로서 기대 받는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여자 대학생은 성역할과 관련하여 성역할 괴리 이론과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직·간접적 경험에 근거하여 문항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선행 연구 및 이론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한국 여자대학생의 경험과 믿음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자 대학원생들은 성역할 괴리 이론과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FGRS의 5개요인 및 Helgeson(2002)이 바람직하지 않은 여성성의 요인으로 제안한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자신을 돌보지 않음'이란 개념들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항을 만들었다.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들, 예를 들어 여성성역할이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인지왜곡(이운정, 2006) 또는 가사 역할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인식(송유진, 2005)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제안들은 Eisler 등이 제안한 개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요인으로 개념화하지는 않았으나 문항 개발 시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6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 89개의 문항이 만들어졌다. 성역할괴리이론을 반영한 41개의 문항은 각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묻고 있으며(1. 전혀 불편하지 않다 - 6. 매우 불편하다),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반영한 48개의 문항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문항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를 물었다. 이렇게 구성된 질문지 120부가 남녀 대학생에게 배포되었으며 수합된 질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38부의 남학생 응답지와 60부의 여학생 응답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문항, 여학생 표집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평균이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 미만이어서 문항에 대한 최소한의 불편함이나 여성으로서의 행동 기대 일치를 표현하지 않은 문항, 문항의 변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이 5.5 이상인 문항이거나 표준편차가 0.75 이하인 문항(Meir & Gati, 1981), 제거하였을 때 내적 일치도를 상승시키는 문항, 그리고 심리전문가 2인의 평가에 의해 그 의미가 척도의 목적을 분명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 문항이 탈락되었다. 탈락된 문항의 대다수는 여성 표집이 남성 표집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거나 혹은 여성 표집에서의 평균이 3.5에 미치지 못한 경우였다.

## 2. 탐색적 요인분석

앞에서 밝혔듯이 초기 문항 개발은 Gillespie와 Eisler(1992), 그리고 Helgeson(2002)의 연구에서 제안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7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두 연구에서 제안한 요인들의 개념들 간 일부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예비 문항분석에서 처음 가정된 요인들 중 특정 요인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문항들의 다수가 제외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제



안된 요인을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바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예비 문항 분석을 통해 남은 22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Comrey와 Lee(1992)에 의하면 요인분석을 위한 표집 크기가 200명 이상이면 양호하므로 수도권 한 여대에 재학 중인 210명(평균연령=21.04, SD=1.99)이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에 포함되었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의미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요인 추출 방법으로 maximum likelihood 방식이, 적절한 요인 부하 값을 얻기 위한 회전 방법으로는 사교 회전 방식인 direct oblimin 방식이 적용되었다. 통계 도구로는 SPSS 15.0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의 평균은 3.49와 5.14 사이였고 표준편차는 1.068에서 1.424 사이였다. 왜도는 -1.475에서 -.306 사이, 첨도는 -.679에서 2.052 사이로 표집의 크기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Tabachnick & Fidell, 2001). Tolerance는 .571 이상이었으며 VIF는 1.666 이하로 일반적인 문항 제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기초로 22개 문항을 모두 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 분석에서 eigenvalue 기준 값인 1 이상인 요인의 수는 6개였다. Scree plot은 4요인 혹은 6요인구조가 적합함을 제안하였다. 이 중 6요인 구조는 교차부하를 보이는 문항이 많은 등 해석의 어려움을 주었고 4요인 구조는 비교적 해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4요인 구조가 선택되었다. 교차 부하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요인-문항 관계를 얻기 위해 패턴행렬에서의 요인 부하가 .33보다 크고 구조행렬에서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40보다 높은 문항들만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5 문항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17개 문항 전체에 대한 내적 일치도와 4개 요인에 대한 내적 일치도( $\alpha$ ), 그리고 요인 간 상관을 구하였다.

### 3. 확인적 요인 분석 및 타당화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에 재학 중인 357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선택된 17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준거 타당도 등의 탐색이 이루어졌다. 선정된 17개 문항 중 한 문항 이상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지는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49명(평균연령=21.15, SD=2.66)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AMOS 7.0을 사용하여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얻은 4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고 이 요인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GFI, TLI, CFI, RMSEA 등을 사용하였다. 한편 변별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탐색하기 위해 Bem(1974)이 제안한 방식으로 측정된 여성성, 우울, 섭식 절제,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중 여성성역할갈등과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관

계는 50명의 여대생(평균연령=21.83, SD=1.56)에게 별도로 얻어졌다. 한편 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50명의 여대생(평균연령=21.24, SD=2.63)이 2주 간격으로 17개 문항에 대하여 반복 응답하였다.

#### 4. 연구도구

##### 여성성역할갈등척도

문항개발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4개요인,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성역할 괴리이론을 반영한 10개의 문항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1)에서 매우 불편하다(6)의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한다. 성역할 역기능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7개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한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2주간의 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다.

##### 한국 성역할 검사(Korea Sex Role Inventory; KSRI)

여성성역할의 긍정적 측면 즉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정진경(1990)은 Bem(1974)의 성역할 검사 제작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 각각 20개씩 총 60문항으로 한국 성역할 검사를 구성하였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로, 긍정성 문항은 중성적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는 각각 .91, .84, .75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76이었다. 이 척도는 Likert 식 7점 척도로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에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들 중 이 연구와 관련된 여성성 척도만 사용하였다.

##### 섭식절제척도(Restraint Scale)

섭식 장애는 섭식절제척도에 의해 측정되어졌다. 이것은 Herman과 Mack(1975), Herman, Polivy, Pliner, Threlkeld와 Muncie(1978)에 의해 제작된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들은 먹으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인지적으로 중재된 노력을 섭식절제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섭식절제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체중미달일 가능성이 있고 외부단서에 민감한 식이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척도를 이임순(1997, 2002)이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임순(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alpha$ )는 .6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alpha$ )는 .819이었다.

### 부정적 기분형용사 체크리스트

우울은 부정적 기분형용사 체크리스트에 의해 측정되었다. Zuroff와 Mongrain(198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조옥귀(1993)에 의해 한국어로 번안되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의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울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실제 우울 기분을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조옥귀(1993)에 의하면 우울취약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부정적 기분형용사의 경험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alpha$ )는 .921이었다.

### 의사결정유형척도

의사결정 의존성은 의사결정유형척도(고향자, 1992)의 의존적유형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Harren(1984)이 개발하였고 고향자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4점 Likert 척도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자신에게보다는 외부로 투사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고향자가 보고한 내적일치도( $\alpha$ )는 .84였다.

## IV.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4개 요인에 속한 문항들과 요인 부하는 표 1과 같다. 각 요인 부하량은 패턴 행렬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17개 문항에 대한 4개 요인의 설명 변량은 .531 이었다. 요인 1은 모두 성역할 괴리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함을 반영하고 있다. 요인 2도 모두 성역할 괴리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각 문항은 여성이 성과 관련하여 정숙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위배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불편함을 반영하고 있다.

요인 3과 요인 4는 모두 성역할 역기능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요인 3은 지나친 의존성이라고 명명되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타인에 대한, 예를 들어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의존성이 반영되어있다. 이런 의존성이 지나칠 때 여성의 자기 개발 뿐 아니라 남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요인 4는 지나친 수동성이라 명명되었다. 여성은 자기주장을 삼가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탐색적 요인분

석에 사용된 자료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alpha$ )는 .76, 요인 1의  $\alpha$ 는 .711, 요인 2는 .728, 요인 3은 .616, 요인 4는 .703 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 모형은 새로운 표집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교차 타당화가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chi^2$ 지수는 표집 크기가 클수록 좋은 모형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GFI, TLI, CFI, RMSEA 등의 지수

<표 3>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우울, 섭식장애와의 상관

|         | 여성성+   | 우울+    | 섭식장애+  | 의사결정의존성 <sup>++</sup> |
|---------|--------|--------|--------|-----------------------|
| 여성성역할갈등 | .164** | .113*  | .344** | .627**                |
| 요인1     | .055   | .120*  | .390** | .409**                |
| 요인2     | .093   | -.050  | .110*  | .273                  |
| 요인3     | .275** | .069   | .223** | .559**                |
| 요인4     | .030   | .220** | .179** | .329*                 |

\*  $p < .05$  \*\*  $p < .01$  + $n=357$  ++ $n=50$

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합도 지수 중 GFI, TLI, CFI의 경우 .90보다 클 때, RMSEA는 .05보다 작을 때 그리고 RMSEA와 관련된 지수인 PCLOSE는 .50보다 클 때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1). 한편 HOELTER의 값은 200보다 클 때 분석에 사용된 표집 크기가 양호함을 의미한다(Byrne, 2001). 표 2를 보면 확인적 요인 분석에 사용된 표집의 크

<표 1>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요인 및 문항

| 하위요인                            | 문항                          | 요인 부하 | 고유값<br>(설명변량)       |
|---------------------------------|-----------------------------|-------|---------------------|
| 요인1.<br>신체적 매력 없음에<br>대한 두려움    | 다리가 굵다                      | .669  | 3.677,<br>(21.632%) |
|                                 | 나는 똥똥하다.                    | .622  |                     |
|                                 | 더 큰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 .590  |                     |
|                                 | 옷을 잘 못 입는다는 말을 듣는다.         | .515  |                     |
| 요인2.<br>성적 희생자가 되는<br>것에 대한 두려움 | 이성친구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           | .507  | 2.112,<br>(12.425%) |
|                                 | 밤에 혼자 택시를 탄다.               | .779  |                     |
|                                 | 밤길을 혼자 걷는다.                 | .706  |                     |
|                                 | 성범죄 뉴스를 본다.                 | .544  |                     |
| 요인3.<br>지나친 의존성                 | 잘 모르는 이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다.       | .405  | 1.861,<br>(10.945%) |
|                                 | 이성과 처음 만나 함께 야한 영화를 본다.     | .363  |                     |
|                                 | 나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 .643  |                     |
| 요인4.<br>지나친 수동성                 | 연약해보일 필요가 있다.               | .617  | 1.381,<br>(8.122%)  |
|                                 | 배우자는 나보다 더 능력 있어야 한다.       | .579  |                     |
|                                 | 무거운 것은 이성친구(배우자)가 든다.       | .558  |                     |
|                                 | 화난 상대에게는 말을 안 한다.           | .574  |                     |
|                                 | 뒤에서 불평한다.                   | .573  |                     |
|                                 |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 .474  |                     |

&lt;표 2&gt;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적합도지수

| $\chi^2$ | <i>df</i>     | GFI    | TLI          |
|----------|---------------|--------|--------------|
| 207.571  | 113           | .934   | .899         |
| CFI      | RMSEA(.90)    | PCLOSE | HOELTER(.05) |
| .916     | .049(.38-.59) | .546   | 233          |

가 비교적 양호하며 적합도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 모형은 새로운 자료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비표준화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것( $p < .01$ )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표준화 계수는 .374 - .745의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각 하위 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요인 간 상관은 .317 - .626 이었다. 각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은 .384 - .617이었다.

기존의 여성 성역할 척도와와의 변별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로부터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검사의 여성성척도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표 3). 새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와의 상관(.164)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준거 타당도를 얻기 위해 우울,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섭식장애의 경우 요인1(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요인3(지나친 의존성) 등과도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의사결정의존성의 경우 요인3 뿐 아니라 요인1, 요인4(지나친 수동성)와도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우울 측정 척도와와의 상관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 $p < .05$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부터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과 기대 받는 역할에 대하여 진술 받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여성성역할스트레스척도의 문항 등도 참조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1차 문항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에서 다양한 선정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한 문항들이 탈락된 후 남은 22개의 문항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4개의 하위 요인이 선정되었고 낮은 요인 부하를 보이는 문항 등은 다시 제외되었다.

1차 문항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지나친 의존성 4문항, 지나친 수동성 3문항 등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 4요인 모형은 새로운 표집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얻은 척도의 4요인 구조가 통계적으로 타당화 되었다. 한편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및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표준화 계수 역시 수용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요인 구조는 신뢰로우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처음 개발되었던 많은 문항들 중 상당수가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17개 문항만 남았는데 이를 각각 3개에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요인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해 서구에서 개발된 FGRS가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음을 고려하면 부정적 측면의 여성성역할이 다면적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문항의 수는 많지 않으나 FGRS와 유사한 개념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척도가 4개 요인을 얻은 것은 이런 다면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한국성역할검사(정진경, 1990)의 여성성척도와와의 높지 않은 상관은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는 다른 영역을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와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과의 상관 크기는 충분히 유의하다. 이 결과는 Martz, Handley와 Eisler(1995)의 FGRS와 섭식장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우울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Gillespie와 Eisler(1992)가 개발한 FGRS와 우울 간의 관계와는 다른 결과이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섭식장애, 의사결정의존성과는 충분히 유의한 관계를 보인 점은 개발된 척도가 반영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이 이를 내면화한 여성의 부적응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은 우울과의 관계는 여성성역할척도가 반영하고 있는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이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내면화되었을 때 부적응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비록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만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준거 타당도는 제한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여성의 부적응 행동만을 설명한다 해도 그런 부적응 행동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

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역할역기능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문항들의 경우 그 내용이 반영하는 부정적 측면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져 인식되지 않는 한 당장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측면 역시 개발된 척도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한 준거타당도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화되지 않은 수동성 등이 여성의 삶에서 자아를 잃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Helgeson, 2002)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척도에서 성역할역기능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문항들을 제외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이 문항들이 부정적 행동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의존성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록 여자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개발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척도의 요인 구조가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연구(Tang & Lau, 1996)는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문화에 적합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한국 여성이 내면화한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의 요인이 다른 나라 여성이 보이는 것과는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 나타난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나친 수동성 요인은 내용적으로 각각 FGRS의 신체적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감정 없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장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유사하나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의존성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FGRS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FGRS의 양육적이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결과는 한국 여성들이 가정 내의 역할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나 완전히 독립성을 획득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개발된 FGRS가 성역할괴리이론을 주로 반영한 척도인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성역할괴리이론과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많이 반영함으로써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척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이처럼 두 이론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 FGRS가 반영하지 못한 요인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측면의 혹은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역할의 내면화가 여성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이 내면화하기를 기대하는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 혹은 순화되지 않은 측면이 여성으로 하여금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사회적 적응에도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여성성역할갈등척도는 상담 장면에서 여성 내담자가 겪고 있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순화되지 않은 여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 한국 여성이 전통적 여성상을 극복하고 여성의 진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로 어떤 요인들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외모를 중요시하거나 혹은 지나친 의존성 등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들은 실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내면화하였고 여성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여성으로 키우려는 교육 프로그램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혹 여성성 혹은 여성성역할이 건강하지 않거나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함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성이 보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따뜻함이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여성성의 측면이 심리적 건강을 함양하는데 무엇보다 크게 기여함이 분명하다. 다만 본 연구는 순화되지 않은 남성성역할과 마찬가지로 순화되지 않은 여성성역할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적인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의 여성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얻어진 문항들은 대부분 여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험에 의존하여 얻어졌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는 보다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측면의 여성성 척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문항들의 경우 부정적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부정적 정서와 바로 관계되기 어려움을 보였다. 이것이 성역할역기능이론을 배경으로 개발된 문항들이 가지는 본질적 한계인지 아니면 문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탓인지 확인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예비 문항들 중 다수의 탈락 이유는 해당 문항에 대해 남성이 여성 이상의 갈등을 경험하거나 여성 이상으로 자신과 일치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각 문항들은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거나 더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이 남성의 여성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남성화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역할에서 자유로운 지각을 하고 있다는 지적(윤유경, 채지영, 2001)은 여성의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탐색하는 문항을 찾기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측정을 위해 여성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보다 적합



한 문항이 더 많이 탐색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역할갈등척도가 실제 여성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그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그리고 여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내면화되고 행동 및 정서로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상훈, 안대천. (2006). 인터넷 광고에 반영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내용 연구. *광고학연구*, 19, 163-195.
- 김영희. (1989). 한국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유형과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4). Strong 직업흥미검사 매뉴얼.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지현, 황매향, 유정미.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 25-41.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 621-632.
- 민무숙, 이정희. (2005). 공학분야 전공여성들의 교육과 직업경험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 65-93.
- 송유진. (2005). 한국과 중국 도시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9, 111-136.
- 안명희. (2004).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거식증의 심리학적 고찰. *동덕여성연구*, 9, 99-118.
- 오운자. (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7, 315-330.
- 윤유경, 채지영. (2001). 성역할 특성의 전환이 호감변화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71-83.
- 이윤정. (2006). 성역할 정체성 및 성역할 불일치가 여성과 남성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0, 436-446.
- 이임순. (1997). 정상인의 섭식유형 및 다이어트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87-100.
- 이임순. (2002). 섭식절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섭식절제 및 역규제적 섭식 척도들 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143-158.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조궁호, 이재영(2007).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05-126.
- 조옥귀 (1993). 우울취약성과 우울수준, 성역차원 및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한범, 김미향, 김인제. (2000). 체육수업유형에 따른 성역할정체감과 체육수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9, 208-216.
- 차영란, 김기범, 전경숙 (2007). 중년여성의 일상생활속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299-314.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asow, S. A. (1992). *Gender stereotypes and roles*. CA: Brooks & Cole Publish.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rownlow, S., Jacobi, T., & Rogers, M. (2000). Science anxiety as a function of gender and experience. *Sex Roles*, 42, 119-131.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ok, J., & Simbayi, L. C. (1998). The effect of gender and sex role identity on occupational sex role stereotypes held by white south african highschool pupi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3, 274-280.
- Eisler, R. M., Skidmore, J. R., & Ward, C. H. (1988). Masculinity gender role stress: Predictor of anger, anxiety, and health risk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133-141.
- Gillespie, B. L., & Eisler, R. M. (1992). Development of the Feminine Gender Role Scale. *Behavior Modification*, 16, 426-438.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Harren, V. H.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athaway, C. R., & McKinley, J. C. (1951).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NY: Psychological Corporation.
- Helgeson, V. S. (2002). *The psychology of gender*. NJ: Prentice Hall.
- Herman, C. P., & Mack, D. (1975). Restrained and unrestrain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43, 647-660.

- Herman, C. P., Polivy, J., Pliner, P., Threlkeld, J., & Muncie, D. (1978). Distractibility in dieters and nondieter: An alternative view of "exter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36-548.
- Kilmartin, C. T. (2007). *The masculine self*. NY: Sloan Publishing.
- Kiselica, M., & Englar-Carlson, M. (2008). Establishing rapport with boys in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ale-friendly perspective. In M. Kiselica, M. Englar-Carlson, & A. M. Horne (Eds.), *Counseling troubled boys: A guidebook for professionals* (pp. 49-65). NY: Routledge.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271-287.
- Martz, D. M., Handley, K. B., & Eisler, R. 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ne gender role stress,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493-508.
- Meir, E. I.,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011-1016.
- Murphy, P., & Whitelegg, E. (2007). Girls and physics: continuing barriers to belonging. *The Curriculum Journal, 17*, 281-305.
- O'Neil, J. M. (1982).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in men's lives. In K. Solomon & N. Levy (Eds.), (pp. 5-43). NY: Plenum.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Ronald F. Levant & Williams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62-206). New York: Basic Books. pp. 163-206.
- O'Neil, J. M., Helme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MA: MIT Pres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e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Y: Basic Books.
- Pleck, J. H., Sonenstein, F. L., & Ku, L. C. (1993). Masculinity ideology: Its impact on adolescent males heterosexu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Issues, 49*, 11-29
- Spence, J. T. (1984). Gender identity and its implication for the concep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 B. Sonderegger(Ed.), *Nebraska symposium of motivation: v.32, Gender*

- issues in psychology* (pp. 59-9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 L.,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3, Ms. no. 617.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MA: Allyn and Bacon.
- Tang, C. S., & Lau, B. H. (1996). The chinese gender role stress scale. *Behavior Modification*, 20, 321-337.
- Well, S. V., Kolk, A. M., & Arrindell, W. A., (2005).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Masculine and Feminine Gender Role Str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4, 271-278.
- Whitley, B. E.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Zuroff, E. C., & Mongrain, M. (1987).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ve affective st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4-22.

\* 논문접수 2008년 7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7월 30일 / 2차 심사 2008년 10월 30일 게재승인 2008년 12월 1일

\* 김지현: 코네티컷주립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gender와 진로발달이 관심분야이다.

\* e-mail: mongsanga@hanmail.net

Abstract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JiH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Female Gender Role Conflict Scale(FGRCS). 89 6-Likert-scale items reflecting self-role discrepancy theory and 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 theory regarding female gender roles were produced. 67 items each were deleted because they did not satisfied several item selection criteri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22 items were performed in 210 female college students and 4 factor structure with 17 items were selected after deleting 5 items cross-load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349 female college students performed and 4 factor structure of FGRCS was fit to this female sample. Discrimina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ies were presented.

Key words: femininity, gender roles, gender role conflicts, gender-role discrepancy, socialized dysfunctional characteristics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